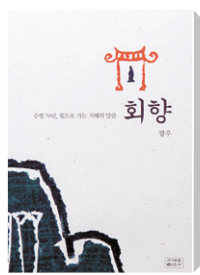


거목의 자애로 밝혀주는 중생의 길

광우 스님 가르침 담은 '회향'... '신행불교'에 실은 권두언 모아



“창밖의 빈 나뭇가지
를 응시하며 나도 모르
게 내 머리를 만지고
내 행색을 훑어본다.
수없이 법(法)을 말해
오면서 얼마나 법답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추
운 사람들의 추위를 해
아려 보았는가.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했는가. 억울한 이의
울음을 함께 울어 주었는가. 없는 자의 없음을
같이 시러 했는가. 이어지는 흐름에 다만 못
중생을 향한 참회의 합장을 올린다.”

우리 시대의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동
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남승 양복을 입고
다녔던 광우 스님.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비구니 강원대학의 첫 졸업생이었고 조계종 비구니
로는 최초로 비구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명사
법계를 품수했다. 광우 스님은 '최초'라는 기록
을 많이 가졌다. 기록으로 남는 최초가 아니라

여래를 본다는 정법의 메시지를 위해 몸소 공
행 하신 스님의 자취가 영원히 기록된다"고
말했다. <회향>의 발간을 주도한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은 책머리에서 "신행불교"가 간
행되던 1969년에서 1996년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불교계 역시 매우 다사다난했던 세월이
었다"고 회고 하며 "스님께서서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경전, 교리, 신앙생활, 교단행사, 사회
문제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 스님 개인적인 삶의 자
취뿐만 아니라 격동기의 한국 불교계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내용도 실었다."고 밝히고 있다.

광우 스님은 포교 분야서 큰 행보를 보였다.
스님이 1969년에 창간해 1996년까지 27년간
발행 해 온 <신행회보>는 문서포교 역사의 한
축이었다. 포교를 위한 신문이나 잡지 등이 활
성화 되지 않은 시기에 '신행회'를 조직해 회보
를 꾸준히 발간했고 회지 차원을 넘어 전국의
신행단체와 군부대 등에서 각광받았다. 발간
11년 만에 <신행불교>로 제호를 바꾸면서 명실
상부한 포교잡지로 자리매김을 했다.

1958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설립한 정각사
를 중심으로 펼친 광우 스님의 포교활동 업적
을 묵묵히 대변해 주는 '신행불교'가 폐간 14
년 만에 새로운 빛을 얻었다. 광우 스님이 매
호마다 썼던 권두언을 정리해 <회향>이란 이름
으로 출간했다. 비구니계의 거목이 드리우는 서늘
한 그늘이다. 27년간 쓴 권두언을 수행과 포교
교리 등 분야별로 정리했다. 좁지 않은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글들은 오늘
날 불자들의 가슴을 폭폭 찌른다. 조계종 총무
원장 지관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법을 보는 자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한
치도 흐트리지 않으며 불교의 현대화와 한국비
구니계의 위상을 정립한 광우 스님이 헤쳐 온
시간들은 이제 한 권의 책 <회향>으로 법계에
회향되고 있다.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2800원

임연태 기자



'선어' 모르면 '선' 안된다



“선은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공부입
니다. 그러므로 일상사를 좀
정리하고 선의 마음으로 읽
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잘 이
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한 번만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좌선

을 통하여 체험적 사색과 실제적인 탐구를 곁들인
다면 선미(禪味)의 한 조각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
색 없는 선은 없습니다.”

민족사의 왕초보 시리즈 '선' 편에서 저자 윤창화
씨는 고구정당하게 독자들을 설득한다. 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 주는 진정
한 공부라고. 그러나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가부좌
를 틀고 앉아 보라고 한다. 마음을 쉬어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몸을 눌러 앉힌다고 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선에 무슨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은 알아야
한다.

호흡이나 화두나 단전이나 그게 뭘지 알아야 바른
좌선이 된다. 선과 관련한 용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허깨비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절하게 되는 것이다.

<왕초보 선박사 되다>는 뭇가 허깨비이고 뭇가 진
면목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갖추도록 선어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

선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에 이어 화두의 의미와 참
구방법, 선의 사상적 뿌리, 대표적인 화두, 선을 이끌
어 온 인물과 책, 가르침은 선어록이 대강이다. 책의
말미에는 선어단구풀이도 실었다.
윤창화 저 | 민족사 펴냄 | 1만1500원

“주인공아, 초심으로 돌아가라”

지안스님 '초발심자경문' 강설 '처음처럼' 출간

“초발심자경문” 한 권만 푼다면 배운
면 중노릇 할 수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경전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고려 보
조국사 지눌 스님이 지은 '계초심학인문
(誠初心學人文)', 신라 원효 스님이 지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고려 아운 스
님이 지은 '자경문(自警文)'을 합본해 수
행법과 마음가짐을 가르친
명저다.

강원 사미(沙彌)의 기
본교재인 <계초심학인문>
을 현대인을 위한 불교 입문
서로 쉽고 자상하게 강의한
책 <처음처럼>(조계종출판
사)을 펴낸 지안 스님(조계
종 승가대학원 원장)은 6월
26일 인터뷰에서 “초심은
순수한 신심”이라며, “이 초심이 지켜져
야 불교 공부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지안 스님은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初發心時便正覺)고 했듯
이 발심이 잘 되면 성불이 기약된다”며
“세상 모든 일도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올곧고 투철한 정신 하나가 있어야 성공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수한 발심을 뜻하는 '초심(初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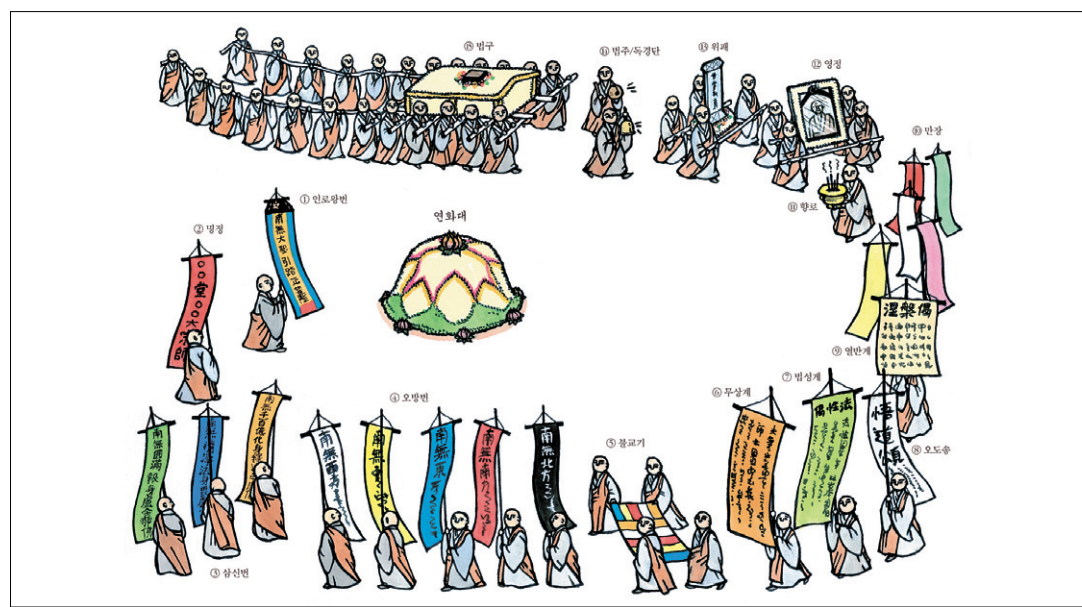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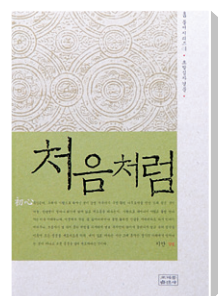
<유마경>에서 강조되는 '직심(直心)'과
다름 아니다. '직심이 도량'이라고 했듯
이, 순수하고 곧은 마음은 불심이자 저마
다 가진 본래의 성품(性品)이나 다름 없
다. 때문에 매순간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
은 '깨달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많은 사람
이 공문(空門)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그대
는 어찌하여 오래도록 중생
의 괴로운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가?”

지안 스님은 특히 “주인공
아, 내 말을 들어라”로 시작
되는 자경문의 첫 구절은
“요즘도 가슴을 찌른다”고
말했다.

“화가 나거나 '내가 왜 이
럴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주인공아’로 시작되는 구절을 생각하며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게 된다는 것.
지안 스님은 “수행자는 한 시도 방일하
고 쉴 틈 없이 정진해야 함을 자경문을 일
깨운다”며 “이 책을 통해 발심 공부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처음처럼 | 조계종출판사 | 지안 강설 |
1만800원

김성우 기자



다비식장 그 장엄한 법문을 그린다



스님들의 장례절차, 영결식과 다비
식은 법문이다. 특히 다비식은 절차
와 격식이 맞춰 진행되어야 하고 그
절차와 격식이 모두 중요한미를 담
고 있다. 한 번의 다비식에 불교의 생
사관과 우주관이 들어 있는 것이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근래에
입적한 큰스님들의 다비식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물론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인종계 등을 망라했고 영결
식과 다비식 풍경을 아주 섬세하게 그렸다. 풍경만이 아
니라 그 안의 모든 동작과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다비장에 마련된 연화대에 불을 붙이는 거화(炬火) 순
서에서 남은 사람이 떠난 사람 위해 하는 마지막 외침
이다. 이제 관이 들어 있는 연화대에 불이 붙을 것이니 그
안에 있는 육신은 놔두더라도 마음은 밝고 신령스러운
곳으로 나아가 해탈성불하시라는 의미다. 다비식의 절정
인 셈이다.

책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입적한 큰스님 17명의
다비현장이 담겼다. 석주 서용 승산 청화 법장 정전 서암
스님 등 이 시대의 큰스님들이 들려주는 마지막 '무언법
문'이 이룩하다. '진짜 사리'다.

임윤수 저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
도 실려 있다.

전강 대선사
범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한실 / 선문연습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한실 / 선문연습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심정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창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채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낀, 저널로 올리는 예 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상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기섭의 오백제자, 나게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매경)

불 사
상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든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굶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감작성클러릭, 임파선클러릭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클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 한의원
www.jasaengcho.com
TEL 053)746-0075
위치 :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오백(황금점)옆